

姜시장 “앞으로 2년 ‘2030 광주 대전환’ 설계”

광주시의회 본회의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8천727억 증가 7조7천770억 규모...맞춤 복지 반영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2030년 광주 대전환 설계’를 선언하며 광주시정의 ‘설계자’ 역할을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제32회 임시회에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다. 광주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8천727

억원을 편성, 지난 18일 광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당초 6조9천43억원보다 8천727억원(12.6%) 증가한 7조7천770억원 규모다. 광주시는 더 두텁고 더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초등학교 10시 출근제 전 학년 확대, 청년 월 임

차료 지원 등을 편성했다. 또 미래 먹거리와 지역 일자리 지키기 분야에는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근로자 주거비 인상, 캐스퍼 전기차 구매자 취득세 지원 등을 반영했다. 더 살기 좋은 광주 실현을 위해 어린이 무상교통 및 청소년 반값 할인 등 정부 K-패스와 연계한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G-패스),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장애인 시설 확충,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개선 등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에 광주시는 ▲1년 365일 24시간 안전한 광주를 위한 선제적 안전 예산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시장·부시장 등 업무추진비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연가 보상비 절감 등을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에 나서는 등 예산 절감 의지를 보여줬다. 또 고금리(5%대)의 금융기관 차입금 2천688억원을 저금리(3%대)로 차환해 연이자 부담액 37억원을 낮추는 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대폭 줄여 재정 건전성도 높였다.

강기정 시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 시기를 조정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좋은 곳은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쓰는 적재적소 예산을 편성한 만큼 많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2030년 5·18민주화운동 50주년 계획도 언급했다. 강 시장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올해 임기를 시작하는 2대 국회와 함께 완수하고 광주의 5월을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5월 민중 축제도 기획하고 있다”며 “반듯없는 준비를 통해 2030년 5·18 50주년에는 명실상부한 ‘나·들의 5·18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강기자

전남도-베트남 동나이성, 경제·문화관광 협력 강화

우호교류의향서 교환

전남도는 2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베트남에서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 가운데 하나인 동나이성과 우호교류의향서(LOI)를 교환하고 경제통상과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동나이성의 응우옌 흥 링 당서기, 응우옌 티 호앙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 12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교류의향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문화관광, 농업,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2월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동나이성에 우호교류를 제안했다. 이번에 동나이성 대표단이 방문해 우호교류의향서 교환으

로 이어지게 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지역 간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실질적 상호협력 관계가 지속될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동남부에 위치한 동나이성은 호치민을 비롯한 6개 광역 지방과 인접한 교통·물류 중심지로 해외 투자 유망지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해외투자기업 중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투자(72억달러)를 한 지역이다. 전남의 해외수출은 지난해 기준 45억달러 규모다. 이 가운데 베트남 수출이 27억달러를 차지한다. 국가별 수출 순위는 중국, 일본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전남도는 1997년 5월 바리야봉파우성, 2012년 12월 컨터시, 2022년 8월 빈 프억성에 이어 이번 동나이성까지 베트남과의 외교영토를 4개 지방정부로 확대하게 됐다. /양시원기자



전남도는 29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베트남 동나이성과 문화관광·농업·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발전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사진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동나이성 응우옌 흥 링 당서기 일행과 환담을 나누는 모습. <전남도 제공>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계획 유감”

전남도, 행정 비효율·자치권 위축 지적...2020년에도 비동의

전남도는 29일 광주시의 총선 공약 과제에 ‘광주경제자유구역에 합평군, 장성군 일부 편입’ 등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명의의 ‘광주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에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협력 노력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입장문에서 “광주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하면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를 광주시 산하 조직인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함에 따라 업무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시도 자치

단체조합으로 구성하면 조직·재정의 추가 부담(광역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연간 운영비 50억 원 소요)이 발생한다”며 “2019년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제도가 폐지돼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에 비해 기업 투자를 유인할 차별화된 인센티브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2020년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합평군·장성군과 함께 광주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한 바 있다. 전남도는 “양 지역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광역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광주시가 앞으로도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김재정기자

광주문화재단 대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노회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노 후보자는 광주시 문화수도정책관·문화관광정책실장 등을 거치고 동구청장을 역임하면서 문화 분야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 문화재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경영 전문성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위원들은 “정치인인 노 후보자가 임기 중 다시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어 조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다소 있다”며 “재단과 광주시장의 정책 방향이 상충할 때 시장을 설득해보고 안되면 포기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문화재단 운영 독립성 측면에서 볼 때 아쉬운 점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1996년 지방고시 합격 후 광주시 문화수도정책관·공보관·문화관광정책실장을 거쳐 민선 5·6기 동구청장을 지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이번 4·10 총선에서 광주 동남을 선거

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도전하기도 했다. 강 시장이 임명하면 노 후보자는 2년 임기의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박선강기자

5·18기록관-광주MBC ‘5·18 영상 디지털화’ 협약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뉴스와 다큐멘터리, 인터뷰 영상 등 영상기록물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에 나선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9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광주MBC와 업무협약을 체결, 그동안 광주MBC가 제작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기록물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상호 협력 ▲두 기관이 보유한 5·18관련 연구정보 및 기록물 상호 열람·제공 ▲5·18 관련 교육·홍보·기록물 수집을 위한 상호협력 등이다. /박선강기자

Panasonic

REAL PRO MAN1 가정의달 보상판매

최대 100만원 할인

쓰시던 안마의자를 바꾸세요

블랙, 베이지, 아이보리

89% 할인, 4년 무상보증, 1년+3년

파나소닉 안마의자 보상판매 이벤트

사용중인 안마의자 교체 시(타사제품 포함) MAN1 최대100만원, MAK1을 포함한 모든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2024.4.5 ~ 2024.4.30

파나소닉 프라자 062)522-2000,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